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차별과 편견’

이종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본부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해방 50주년과 정부가 제정한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의 미술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자는 요구에 부응하여, 5·18광주민중항쟁을 통해 국제사회 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광주의 민주정신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창설되었다.

2년마다 약 3개월에 걸쳐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는 국제 현대미술의 흐름과 방향을 특정 주제로 담아내는 본 전시를 중심으로 당대 문화계의 주요 관심사 및 현안과제를 주제별로 묶어 보는 특별전, 공연·이벤트·학술회의 등의 축제행사와 부대행사로 엮어져 왔다.

제1회 ‘경계를 넘어’(예술총감독 이용우, 이하 이름만 표기), 제2회 ‘지구의 여백’(강연균), 제3회 ‘인+간’(오광수), 제4회 ‘멈춤, PAUSE, 止’(성완경) 라는 주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상무대와 헌병대에 관한 군부통치의 역사, 군부독재자에 대한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한 작업(서용선 작품)

그때마다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준 광주비엔날레의 진행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은 않았다.

관료 행정의 폐해가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광주정신의 실종이 문제 제기(“광주비엔날레에는 광주가 없다.”) 되었으며 매스미디어의 몰량 공세와 징발을 통해 관광버스로 동원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수학여행 단체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베니스 비엔날레나 카셀 도큐멘타의 전체 관람객 수는 수만 명 수준이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보적인 미술운동진영은 명분과 실리를 운산하며 참여파와 불참파로 패가 나뉘었다. 참여파는 특별전 ‘광주 오월정신전’(제1회), ‘광주 통일미술제’(제2회), ‘인권과 예술’(제3회), ‘집행유예’(제4회)에 참가하여 ‘광주정신’ 텍스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고 불참파는 전국의 민

주인사·단체들이 제작한 '만장'으로 금남로에서 망월동까지 만장터널 설치 퍼포먼스를 펼치는 '안티 비엔날레'로 답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제5회 광주비엔날레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예술총감독 이용우)에 참가하여 특별전시회 '차별과 편견'을 주관하기로 했다.

사업회는 광주비엔날레가 위에 적은 여러 가지 한계와 현 예술총감독에 대한 미술진영 일부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가 익명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 속에서 전시와 이벤트와 공연의 복합문화축제를 통해 사업회의 정체성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5·18 자유공원-상무대 영창이 갖는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을 민주화운동의 현재성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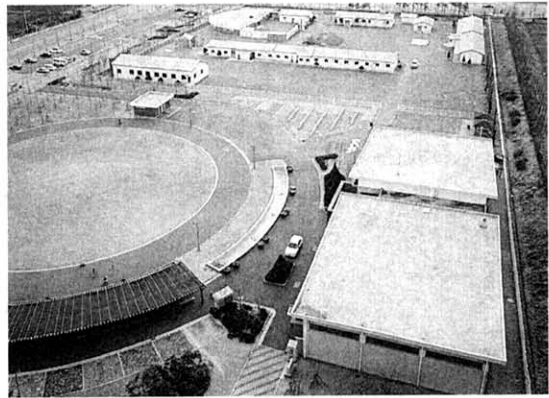
광주 비엔날레의 한계와 장점

사업회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지원을 받아 참여하기로 한 특별전 '차별과 편견' (2004. 9. 7~11. 13)은 공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합하는 전시, 시민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전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행동주의 미술그룹이 참여하는 전시, 그리고 광주지역의 문화지도를 다시 그리는 전시를 지향하고자 한다.

5월 항쟁의 역사적 상흔과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인 '지역 차별'의 정치적 쟁점에 휘말려 있는 광주에 대한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언술'을 추적하여 그 심층에 침잠해 있는 역사의 동력에 접근해 보려는 것이 이 전시의 기획 의도이다.

전시에는 다양한 각도로 구체적 현실을 해석하여 시각 이미지를 생산해 온 작가주의 그룹과 지역의 문화·사회단체, 시민·청소년들이 각각의 주제에 따라 함께 참여한다.

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는 작가-관객의 일방적 관계가 아니며 어느 한쪽을 대상화하지 않고 취재와 비평적 탐구, 제작의 일련의 과정에 주체



전시장인 5·18자유공원 전경

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 (중·고생)과 교사모임의 참여를 통해 공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매개로서 전시를 활용하는 의미도 있다.

공간적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시는, 전시장이라는 장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네트워크형이며 그 의미 맥락과 형식면에서 '과정'으로서의 전시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 전시는 구체적 삶의 현장과 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하나의 답으로 예비되어 있지 않다. 개인을 지배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식은 수많은 다른 사건들과 만나는 삶의 궤적 속에서 마모되거나 강화되어 개인의 기억으로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전시라는 이름으로 '불쑥' 말 걸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제5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은 사업회가 진행해온 그간의 전국순회전시와 연결선상에서 이뤄지는 전시로서, 이전 전시의 결집임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를 위한 규모 있는 시도이다. 이제까지의 전국순회전시회가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부여하여 지역 내 사람과 기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성화 하는데 일조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이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비엔날레의 성격을 빌어 현실 문제를 화



헌병대 식당에 있는 가상의 '광주탈출'이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만든 영화 선전 리플릿, 포스터 그리고 홍보전단 (박태규 작품)

두로 작업에 천착해 온 소장 작가들의 주제 정신과 영상, 사진, 설치, 공공미술, 만화, 디자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영역·장르에서 실험과 문제제기를 거듭해 온 행동주의 미술그룹의 작업을 동시에 펼쳐 보이는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특별전의 내용 구성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1. 광주항쟁 문화지도 그리기

광주항쟁과 관련된 사건, 지점들을 다양한 역사·문화적 관점으로 포착하여 작가와 주변 인물들(시민, 전문가)이 함께 제작하는 인문지리, 심리지리를 그리고자 한다.

프로젝트2. 차별과 편견

광주를 보는 시각은 때로는 극단적인 편견에 의해 매우 공격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왜곡된 편견의 재생산 구조에 의해 가해·피해의 이중적 코

드로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한 상무대의 군 법정과 영창은 왜곡된 지배구조의 비뚤어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차별과 편견'을 구체적인 제도로서 집행했던 곳이다. 여기서 우리는 80년 광주만이 아니라 오늘의 광주,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수자들을 향한 수많은 편견과 피차별에 대해 새삼스럽게 언급하고자 한다.

프로젝트3. People Bottle-광주 만인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그룹이 참여하여 항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으로 현재 삶에서의 의미 등을 입체적으로 취재, 1개 팀이 1인의 인터뷰 기록을 1개의 병에 채우는 형태로 약 1,000개의 병으로 구성한다.

프로젝트4. 아하! 으흠!

광주는 움직이는 도시이다. 다른 지역 이상으로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주체적이다. 자신의 의사표현도 분명해서 정치적 견해도 별로 숨기지 않는다. 오늘을 사는 광주시민들의 반응을 가감 없이 살펴보기 위한 기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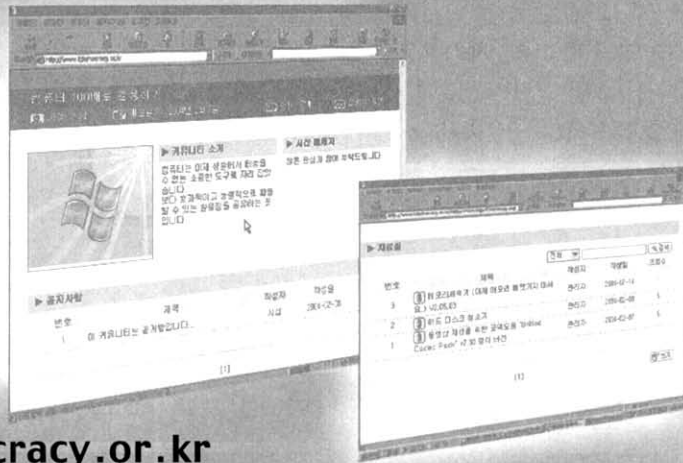
시민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는 시내 3곳(금남로, 터미널, 전남대 주변)에 인터넷 중계가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을 전시장 모니터와 인터넷 접속에 의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방영한다.

프로젝트5.

레고로 만드는 세계 현대사 상징 인물들

장준하, 문익환, 전태일, 윤상원 같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들과 말콤 X, 체 게바라, 프란츠 파농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초상을 관객들이 레고를 이용해 제작한다. 전시 공간의 사정에 맞춰 전시장 내·외부 및 거리에 상황에 맞게 설치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커뮤니티 오픈!



www.kdemocracy.or.kr
www.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r
www.민주화.kr

'정치/사회, 동아리, 취미생활, 생활/건강, 과학/인문, 문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커뮤니티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수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무료 호스팅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웹 회원에 등록하시고 나만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용 민주화운동 영상자료 제작

사업회는 청소년 교육용 영상자료 세 종류,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을 제작했다. 이 영상자료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기획은 사업회가, 제작은 MBC프로덕션에서 맡았으며,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각각 20분씩 3편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영상자료는 사업회에서 제작한 <역사 다시 읽기> 소책자와 함께, 교사들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획, 제작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사업회는 앞으로 몇몇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이 교육 자료들을 활용하여 시범수

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수업의 결과 및 교사들의 수업 견해를 반영하여 교육자료의 내용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노동자 등 가난한 자의 벗, 영등포산업선교회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3만 4천여 건 사업회에 기증

노동자 등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민주화운동을 펼쳐 왔던 영등포산업선교회(신승원 목사)가 그동안 수집, 보관해 온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약 3만 4천여 건을 사업회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사료에는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자체 활동 자료는 물론 원풍노조, 동일방직노조 등 70년대 민주노조운동 관련 자료, 80년대 초 노동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던 구로동맹 파업, 대우자동차 파업과 관련된 자료, 구로지역에서 전개된 각종 노동운동 관련 자료, 그리고 민중교회 및 산업선교회 활동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노련 등 기독교 노동운동 관련 자료 등도 대량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료에는 일반 문서자료뿐만 아니

라 80년대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있었던 노동운동 관련 주요 집회를 담은 희귀 사진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 및 전시 등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기증된 사료와 향후 수집될 자료는 정부기관 이외의 영역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사료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된 후, 분류 및 기술,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관련 연구자 및 일반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영등포산업선교회가 7,80년대에 생산된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자료들을 사업회에 기증함으로써 향후 다른 단체 및 시민들의 사료기증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하마오 추기경, 이사장에게 감사 편지

1973년 5월에 있었던 '한국기독교인 선언'을 전 세계 44교단이 지지한 광고(뉴욕타임즈, 1974년 5월)의 원본을 기증해 준 하마오 후미오(濱尾 文郎) 추기경에게 사업회가 지난해에 감사패를 보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사업회 박형규 이사장에게 보낸 하마오 추기경은 편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The New York Times 1974년 5월 5일자에 실린 전면광고 <An Appeal to American Christians> 복사본이 들어있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중략)

저는 지금 바티칸에서 세계 난민, 이민과 선원, 유랑민, 유학생 등, 정해진 주거 없이 항상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 성직자로서의 활동을 1998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중략)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 또 세계의 고통 받는 난민, 이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추기경의 새로운 문장(紋章, 동봉했습니다)에는 헤롯왕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간 예수와 마리아, 요셉 그 성스러운 가족을 인용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 2004년 2월 기증자료 】

기증자	내 용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활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전택부	강아지의 항변, 무슨 재미로 사나, 자화상을 그리듯이 1·2, 토박이 신앙산맥, 인간 신흥우, 월남 이상재의 삶과 한마음 정신 등 책 7권
임재경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80.5.15)
배중도(裴重度)	韓國自由言論實踐白書, 韓國勞動者の叫び, 韓國勞動運動の炎 등
역사문제연구소	조성만열사 민주국민장 자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자료, 6월항쟁 관련 자료, 87 대통령선거 관련 자료 등
양경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97년 1월 27일 정기총회기념 전에 찍은 판화 벽걸이
이종률	87년 2·7 집회 때 구속되어 서대문구치소에 있을 때 달았던 수번호, 89년 전두환·이순자 구속투쟁 때 사용했던 피 문은 마스크 등 2점
김윤철	김대중, 이희호 서도전 초대장(84.11.21~24, 뉴욕 루즈벨트 호텔), 전두환대통령 미국 방문 시 UN광장에 모여 벌인 반대시위 사진(18점), 서도전 테이프 끊는 사진(1점), 고 함석헌 선생 사진(2점), 고 장준하 선생 추도식 사진(1점), 김대중 사진(1점), The New York Times Magazine 김대중 관련 기사 스크랩(84.12.23)
이옥경	사법연수원 수료패(82.8.2), 방송문화진흥회 재임 기념비(90.12.12), 감사패(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투쟁 피해자가족협의회 증, 88.4.12), 감사패(노동과건강연구회 증, 88.6), 개업 축하패(청룡수지 대표 정국영 증), 변호사 조영래 명패, 고문변호사 위촉장(동아일보노동조합, 88.1.8), 고문변호사 위촉장(서울신문사노동조합, 88.4.20), 고문변호사 위촉장(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항제철주노동조합, 89.7.4), 감사패(서울신문사노동조합 증, 89.4.13), 조선일보 사설 동판(조선일보사노동조합 증) 등 총 11점
佐藤 和夫	「世界」 No181~708(1961~2002) 「朝日ジャーナル」 No223~1750(1963~1992)